

2022  
수특

2022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한 박재삼 내신 수능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 수능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감나무 째 되라, /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A] 가는 /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B]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  
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  
질까 본데,

「 그러나 그 사람이  
[C]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D] ㉣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E]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땀던지  
㉤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1. 윗글에서 화자의 정서와 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에서 체념으로 바뀌고 있다.
- ③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와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쓸쓸함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슬픔을 가진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2. 시인이 윗글을 창작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열매'에서 연상되는 빛깔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야지.
- ② [B]에는 나뭇가지가 '뺨어 가'는 형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야지.
- ③ [C]에는 '그러나'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야지.
- ④ [D]에는 '새로 말하면'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 ⑤ [E]에는 '그 사람도'를 통해 '그 사람'과 공감 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야지.

3.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노을빛'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의 사랑을 '감나무'의 '열매'에 빗대고 있다.
- ② 2연에서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감나무'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2연에서 '내 마음'의 지향점을 '그 사람'의 '등 뒤', '머리 위'로 나타내어 '나'의 사랑이 소극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3연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대비하여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3연에서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제시하며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 <보기>의 ㉠~㉣를 바탕으로 위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한(恨)에는 자신을 파악하는 적극적인 절망의 힘도 없고, 대상을 향해 도전해 가는 능동적인 비판력도 없다. 한은 고독도 참여도 낳지 않는다.

㉡ 글이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일종의 한(恨) 같은 것에 붙잡혀서 쓰이는 것 같다. 글 전부가 한의 표현이 아니라 해도 한의 변형 또는 외연(外延)으로 글이 되어 나오는 것 같다.

㉢ 한(恨)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마음이며, 자기 내부에 쌓여 가는 정감이다.

- ① ㉠ : 화자는 '그 사람'과 사별한 상황에서 비탄에 빠져 자기를 찾기보다 실현이 불확실한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
- ② ㉠ : 죽음의 세계로 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
- ③ ㉡ : 시인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부재의 안타까움과 한을 '감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④ ㉡ : 시인은 과거의 작품들이 그렇듯 불가피한 이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애절한 정한의 아픔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 저승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간절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본질적으로 슬픔은 화자 자신의 내면적 문제이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감정 이입의 방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미 죽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타나 있다.
- ④ ㉣ : 상대방이 알아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 사랑의 대상이 전생에 불행했음을 알고 난 뒤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6.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 과정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②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조하며 시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7. 윗글의 '열매'와 <보기>의 '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황혼(黃昏)의 □둘□이 조차 벼마턱 빗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저.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쏫 디고 새닙 나니 녹음(綠陰)이 실렸논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어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궂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듯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어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크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흘시고.  
 천리만리(千里萬里) 길흘 뉘라셔 촌자갈고.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① '열매'와 '둘'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 ② '열매'는 회한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지만, '둘'은 미래의 만남을 상징한다.

- ③ '열매'는 폐쇄와 축소의 이미지이고, '돌'은 개방과 확대의 이미지이다.
- ④ '열매'는 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돌'은 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 ⑤ '열매'는 임을 향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고, '돌'은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8.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슁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만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해 윗글의 시구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재삼의 '한'은 임이 살아 있을 때 고백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을 노래하고 있다. 임이 죽어 저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에게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하고, 자신에 대한 임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화자의 한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① 1연의 '노을빛'은 '한'의 정서를 환기하며 그 이미지가 '나의 사랑을 빗댄' 감나무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 ② 2연의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는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이 이승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2연의 '등 뒤로 번어 가서'와 '머리 위'에서 '휘드러질까 본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다.
- ④ 3연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는 화자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다라면 그 마음을 받아주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3연의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환기하는데, 여기서 화자가 품은 한의 깊이가 드러나고 있다.

10.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山林)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  
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  
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① 도치의 방식을 활용해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형식의 어구를 반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해 정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11.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यो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  
요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  
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  
기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  
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편섭  
섭하오

- 이상, '거울'

- 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나무쯤 되라,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 저승밖에 없는 것 같  
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꺼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  
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12. 윗글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저 내 일이어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있으라 했다면 가라마는 제 구태어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언젠가는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세요.
- ②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소극적으로 후회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세요.
- ③ 어차피 살아서는 못 만날 인연이라면 죽어서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기다리며 종교에 귀의하세요.
- ④ 떠나간 사람이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을 때처럼 답답한 일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떠나간 이유를 직접 물어보세요.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노을빛'에 감정을 이입하고, '감나무 열매'의 색채와 연관시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 사랑하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승'이라는 시어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응축된 표현으로,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나타나 있다.
- ④ ㉣ :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⑤ ㉤ : 그리움의 대상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음을 알고 난 뒤에 느끼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나타나 있다.

14.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쪽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옆땀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옆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산을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을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山)'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담고 있다.
- ⑤ 반복되는 말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며 운율감을 주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나무쯤 되랴,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같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15.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서러운 노을 빛'이라는 데서 화자의 슬픔을 느낄 수 있군.
  - ② ㉡ :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다는 데서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느낄 수 있군.
  - ③ ㉢ :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 가'겠다는 데서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느낄 수 있어.
  - ④ ㉣ : 사랑하는 임에게 화자의 사랑이 '느껴운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될는지 몰라'라는 회의감이 함께 드러나는군.
  - ⑤ ㉤ :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고 하며 화자는 '설움'을 매개로 하여 자신과 '그 사람'을 연결하고 있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재삼의 시는 한(恨)으로 대표되는 전통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별이나 죽음 따위의 실질적인 아픔이나 가난했던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한은 친숙한 소재와 어우러져 시 전체를 관통하는 비애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박재삼의 시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자제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 ① '감나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비애감을 조성하고 있군.
- ② '서러운 노을빛'은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한이 사랑하는 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④ '휘드러질까 본데'는 임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자제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감나무쯤 되라  
 [A]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B] 그것도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가서  
 └ 그 사람의 머리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그러나 그 사람이  
 [C]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D]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 소망인 것을  
 └ 알아내기는 알아낼런지 몰라!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E]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17.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화자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삶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18. 이 시의 [A]~[E] 중,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래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임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할순가.  
녹수도 청산을 못니져 우리 예어 가시고.  
 - 황진이, '청산은 내 뜻이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9.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루지 못한 사랑과 그로 인해 응어리진 화자의 근원적 한과 설움을 드러낸다.  
 ②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화자의 임에 대한 원망을 함축한다.  
 ③ 비극적 사랑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함축한다.  
 ④ 화자의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함축한다.  
 ⑤ 과거 회상을 이끌어 내어 화자의 현재 경험과 과거를 중첩시키는 기능을 한다.

20. 다음 조건에 따라 이 시를 바꿔 써 보려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보기>

- 시적 흐름을 고려하여 3행으로 압축할 것
- 이 시의 시어(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
- 화자의 정서를 반영하되, 각운을 지킬 것

- ① 내 사랑은 서러운 노을빛 감나무를 닮았구나.  
 노을빛 열매가 익어 갈수록 내 사랑 역시 익어가는구나.  
 평생 그 사람과 함께하려는 내 소망 역시 깊어간다.  
 ② 나 죽어 영롱한 사랑의 빛깔로 그대 등 뒤 환하게 비추리라.  
 내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은 알아볼 수 있을는지.  
 열매의 빛깔이 왜 노을빛인지를 그대는 알아낼

수 있을는지.

- ③ 내 사랑 감나무라면 저승까지 번어가서 그 사람 머리 위로 휘드러질까  
 노을빛 열매 열리면 그것이 내 전생(前生)의 설움이었음을 그는 알까  
 그의 삶 역시 서러운 노을빛이었음을 내가 왜 몰랐을까, 몰랐을까  
 ④ 날 뿌리치고 가신 당신이지만, 나는 그대 있는 저승까지 따라 가고파  
 우리 사랑 그곳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대 등 뒤로 뺏아가서  
 느껴운 열매되어 그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⑤ 그대 향한 내 사랑의 손길을 서러운 소망을 담아서 그대 등 뒤로 전해 볼까나  
 그대 서러운 사랑의 손길을 받아서 붉디붉은 감나무로 맺어볼까나  
 그대 떠난 곳 그 곳을 바라보며 마지막 느껴운 열매로 살아 볼까나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 설움이요 전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2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의 구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학적 측면에서 유추는 서로 같지 않은 것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냄으로써 둘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 유추는 서로 다른 것을 무조건 하나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유지하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의 조화를 꾀하는 사유방식이다.

- ① '노을빛'은 붉은 감과 화자의 서러운 사랑을 결합시키고 있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 ② '감나무' 가지의 뺨어 감은 '그 사람'에게 뺨어가는 화자의 마음과 결합하여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 ③ '감나무' 가지가 '저승'으로 뺨어간다는 것은 시적 대상인 '임'이 이미 죽었음을 의미한다.
- ④ '등 뒤'나 '머리 위'는 대상의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죽어서조차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화자의 소극성을 볼 수 있다.
- ⑤ '그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나의 고백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사랑을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3.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기대-희망-환희                      ② 열망-허무-비판
- ③ 자조-저주-용서                      ④ 절망-좌절-체념
- ⑤ 소망-회의-한탄

24.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의 부재로 인한 한이 드러나 있다.
- ③ 화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자기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25.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영탄적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적 심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대상과의 거리를 인식하고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내신, 수능형 문제

#### 1. <답> ①

화자는 자연물(감)을 활용하여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2. <답> ④

[D]에서 '새로 말하면'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시상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추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C]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그 사람'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E]에서는 '그 사람'도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통해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심정에 공감해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3. <답> ④

과거와 현재 모습의 대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모든 소망과 설움이 깃든 감나무 열매에 담긴 '나'의 그리움을 '그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① 붉은색의 노을빛이 주는 서러움과 감나무 열매의 색깔이 일치하는 것을 활용하여 '나'의 서러움이 깃든 사랑을 감나무 열매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감나무'는 화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자연물이다. 그것이 '제대로 번을 데'가 저승밖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살아생전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③ '등 뒤', '머리 위'라는 위치를 통해 저승에서조차 '그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나마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그사람'도 나처럼 설움을 가득 안은

채 한평생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확인할 길 없는 안타까움을 '몰라'라는 표현 속에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 4. <답> ②

화자의 사랑이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한(恨)과 세상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연결시킨 것으로 ㉠ 관점에 어긋난다. 이 시에서 한(恨)은 임의 죽음으로 인해 현실에서 사랑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보기>의 ㉠에서는 한(恨)을 나에게로 향하는 고독이나 세상을 향한 도전을 날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화자의 사랑이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 ②는 <보기>의 ㉠ 관점에서 어긋난 것이다.

③ 한(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한의 변형 또는 외연으로 글이 되어 나오는 것과 같다.

④ 문학 작품들이 정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 작품에 나타난 한(恨)의 정서를 화자의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 5. <답> ⑤

화자는 '그 사람' 역시 화자처럼 한(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며 이 점을 자신과 '그 사람'을 잇는 매개로 인식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내면에 깔린 것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라는 표현과 관련지어 ㉠을 이해하자면, '그 사람' 역시 화자처럼 한(恨)을 느끼며 살았으며 화자는 한(恨)을 자신과 '그 사람'을 잇는 매개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노을빛'에 '서러움'의 감정을 투영하여 표현한 감정 이입이다.

② 자신의 사랑을 표상하는 감나무가 저승으로 가지를 뺏는다는 것에서 대상이 죽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될는지 몰라!'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불안과 의문을 발견할 수 있다.

④ 인생의 전부인 설움이자 소망이라고 한 것을 통해 사랑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

6. <답> ③

'~르는지 몰라'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7. <답> ⑤

윗글의 '열매'는 시적 대상인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소재이며 <보기>의 '돌'은 그리운 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8. <답> ①

<보기>에서는 '하이얀', '희게' 등의 흰색 이미지를 통해 그대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윗글에서는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감을 통해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9. <답> ④

3연의 '그 사람이 /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열매를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냈을 때,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받아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노래한 구절이다. 즉 화자의 마음을 '그 사람'이 받아줄지에 대해 화자가 확신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했다라면 그 마음을 받아주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① '노을빛'의 붉은 이미지는 '한'과 연결되어 그 정서를 환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가 '나'의 사랑을 빚댄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② 화자의 마음을 전할 곳이 저승밖에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저승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등 뒤로 번어가서'와 '머리 위'에서 '휘드러질까 본데'는 화자의 마음을 사랑하는 임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는 사랑하는 사람

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임이 죽고 자신의 곁에 없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가 지닌 한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10. <답> ②

<보기>는 '얼마나 ~ 일이나'를 반복해 푸른 산처럼 지구를 디디고 하늘을 지향하는 태도를 긍정하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윗글은 '내 전 설움이요 전 소망인'에서 유사한 형식의 어구를 반복해 임의 부재로 인한 한과 임을 향한 사랑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는지 몰라!'를 반복해 화자가 품은 한의 정서도 부각하고 있다.

11. <답> ①

<보기>는 화자가 '거울'을 보며 느낀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윗글은 '감나무'를 통해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12. <답> ②

윗글의 화자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화자에게 후회만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고백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① 윗글의 화자는 죽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계속 기다리라는 말은 자신이 후회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

③ 윗글의 화자는 종교적으로 이별을 승화하고 있지 않다.

④ 윗글의 화자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의 경우 임이 죽음으로 인해 부재하고 있다. 따라서 임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따지라는 조언은 윗글의 화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13. <답> ⑤

윗글에서 화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그 사람도 자신처럼 설움을 가득 안은 채 한평생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확인할 길 없는 안타까움을 '몰라'라는 표현 속에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붉은색의 노을빛이 주는 서러움과 감나무 열매의 색채를 연관시켜 사랑이 끝나고 그리워하는 서러운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살아 생전에 표현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승'이라는 시어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마음 벅찬 그리움을 '느껴온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몰라'라는 시어로 안타까움과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4. <답> ⑤

윗글에서는 '그 사람이 / 그 사람의', '전 설움', '전 소망',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등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산은 ~다'의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산의 다양한 의미를 강조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답> ③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에서 열매가 달린 감나무 가지가 저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이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겠다는 것은 저승까지 임의 뒤를 쫓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동시에 화자의 등 뒤로 뺨어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우면서도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서러운 노을빛'은 화자가 느끼는 서러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②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다는 것은 임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이 나타난다.
- ④ '느껴온 열매'는 화자의 사랑을 담은 열매로

'그 사람'도 마음속에 심고 싶었던 열매이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을 '될는지 몰라'라고 하며 회의감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⑤ '그 사람도 이 세상을 /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땠던지'에는 그 사람도 자신처럼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서 '설움'은 화자의 감정인 동시에 '그 사람'의 감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그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16. <답> ⑤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는 화자는 감나무가 되어 임에게 번어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임도 화자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추측의 표현이다. 따라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자제해서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① '감나무'라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임에게 닿고 싶지만 임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 줄지 알 수 없다는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러운'이라는 한의 정서를 '노을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에 더해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랑의 열매가 달린 '감나무'가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다는 것에서 화자의 한이 임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휘드러질까 분데'는 감나무가 되어 임에게 가서 닿고 싶은 화자의 갈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답> ③

'될는지 몰라!', '알아낼는지 몰라!', '그것을 몰라!' 등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8. <답> ⑤

[E]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19. <답> ①

화자의 비극적 사랑과 그로 인해 응어리진 근원적 한과 설움을 상징한다.

## 20. &lt;답&gt; ③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사랑이 저승에 가거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이 '느껴온 열매'로 맺힌 것을 보고, 그것이 전생의 설움이며 소망인 것을 그 사람이 과연 알아낼지 모를 일이라며 한스러워한다. 어쩌면 화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만 간직한 채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깨달음에 화자는 다시 한 번 한스러움을 느낀다.

## 21. &lt;답&gt; ②

화자의 서러운 사랑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한으로 심화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리움이 서러움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2. &lt;답&gt; ⑤

어쩌면 화자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만 간직한 채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인 것이지 그 사람이 이미 나의 고백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사랑을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23. &lt;답&gt; ⑤

7행의 '그러나' 앞부분, 사랑의 좌절로 인한 죽음, 뒷부분에서는 그의 집 안마당의 열매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망', 그 사람이 알아 낼 수 있을까 하고 '회의',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한탄'으로 전개된다.

## 24. &lt;답&gt; ②

사랑의 실패로 인한 절망과 한을 표현하고 있다.

## 25. &lt;답&gt; ⑤

화자는 임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랑을 '감나무'가 되어 전하고 싶은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사랑을 보이지 못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으며, 임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설움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라고 하며 영탄의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6673-668-1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2.22  
가격 1500원

